

1930년대말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과 특성

류 중 렬*

1.

본고는 1930년대말의 가족사·연대기소설을 한국 근대소설의 한 유형으로 설정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첫 시도로서, 이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1930년대 후반은 일제의 탄압에 의해 카프가 해산되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강압적 식민통치 방식의 극악성을 드러내는 시기이다. 우리 문학은 현실과의 대결의식은 물론 그 문제점들조차 그려내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실적 문제에 가장 민감했던 많은 카프 작가들이 전향하게 되고, 그들의 전향 이후의 작품은 전향문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상의 총체성’을 드러낸다는 장르적 특성에 의해 장편소설이 이 중에서도 특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리하여 장편소설의 본질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위기에 처한 장편소설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장편소설개조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된다. 이러한 장편소설개조론의 창작방법론 중의 하나가 가족사·연대기소설론으로, 김남천, 최재서 등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김남천은 「대하」를 발표하고, 이어서 이기영의 「봄」, 한설야의 「탑」 그리고 이태준의 「사상의 월야」 등이 발표된다. 이러한 유형의 소설을 가족사소설 혹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 일컫고 있

* 부산외국어대학 국문학과 교수

지만 용어의 개념뿐만 아니라 명칭에 있어서도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작품들을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 명명하고, 그 개념과 특성을 밝혀 유형적 독자성을 정립하고자 한다.

2.

가족사·연대기소설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930년대 후반에 김남천, 최재서 등에 의해 장편소설개조론으로 제기된 소설유형의 하나로, 가족사소설과 연대기소설의 복합형태이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의 김남천이나 최재서 뿐만 아니라 근래의 연구가들에 이르기까지, 그 용어의 명칭이나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채 막연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먼저 가족사·연대기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한 김남천의 경우에도 용어에서조차 혼용되고 있다. 그의 평론을 통해 몇 가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약 일년동안 내가 우리 작가에게서 배운 것은 좋은 의미에서의 풍속상태의 문학적 가치다. 또한 외국문학에서 내가 친히 취급하려 하는 것은 가족사나 연대기에 관한 가치다.¹⁾

『로만』개조의 단초적인 출발까지를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보다 풍속개념의 재인식과 가족사와 연대기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장소일까 생각한다.²⁾

우연한 기회가 돌연히 생겨서 급작스리 장편에 착수하면서, 열거결에 가족사연대기를 계획해 보았으나 그 유명한 토마스·만의 「뫼텐볼르크일가」나 또는 폴스위지의 것이나, 로제·마르탕·듀·갈의 「티보-일가」나, 또는 그 보다는 더 유명한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쥬호의 형제」 같은 것도 연구한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사나 연대기를 계획하면서도 태서의 이름이 높은 그류의 명작조차 해석해볼 겨를이 없었으니, ……중략………위선 장편의 일부(「대하」)를 써놓고, 한번 문우제씨에게 비판을 받을려고, 가족사

1) 장편소설에 대한 나의 이상, 청색지 1938. 8. p. 28.

방점은 필자가 친 것으로 이하 동일하다.

2) 현대 조선소설의 이념-「로만」개조에 대한 일작가의 각서, 조선일보 1938. 9. 10.- 9. 18.

연대기를 리얼리즘의 구현과 내의 종래의 지론과를 동일시켜서 장편개조론을 이 삼차 제창해 보았는데, 아직도 별로 비판받은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2부의 준비차로, 지금 전기의 태에서 유명한 가족사소설들을 읽어 보고 연구하는 중에 있으니……³⁾

오래인동안 계속되어 오던 장편소설논의 속에서 구체화의 방향으로 더듬어 내인 하나의 방향은 가족사연대기소설로의 길이었다.……중략……문학의 위기를 타개해 보려는 길이 어째서 장편소설의 검토나 개조로 열려졌는가, 또는 그 장편소설개조론의 방향이 어째서 연대기가족사소설이나 풍속론으로 열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등의 사정은 여기서 자세히 전할 수가 없다.⁴⁾

이처럼 김남천은 〈가족사〉 〈연대기〉 〈가족사연대기〉 〈가족사소설〉 〈가족사연대기소설〉 〈연대기가족사소설〉 등으로 혼용하고 있다.

최재서의 경우는 김남천보다는 덜 하지만 아래의 인용처럼 〈가족사소설〉과 〈가족사연대기소설〉을 혼용하고 있다.

요새 우리가 가족사소설이라고 부르는 제작품……중략……한 콜로니컬(연대기)로서 어떠한 가족의 역사를 삼세대 내지 사세대에 선하여 취급하라는 것이다. 엄밀하자면 그들을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중략……(독자는 우리 문단에서 김남천씨가 『대하』 제1부를 발표한 것을 기억하라. 이 작품은 아직도 제1부가 발표되었을 뿐이므로 논평하기를 삼가지만 그 의도나 수법에 있어서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는 것은 거지만 틀림없다는 바이다.……⁵⁾

김남천씨의 『대하』, 이기영씨의 『봄』, 한설야의 『탑』 등 모도다 가족사소설이라 볼 수 있는데,……⁶⁾

양자가 모두 이처럼 용어를 혼용해 쓰고 있지만, 김남천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을,⁷⁾ 최재서는 가족사소설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이 다소 다르다.

그 이후 이재선⁸⁾이나 신상성⁹⁾은 「삼대」 「태평천하」 「대하」를 뭉뚱거리

3) 내가 영향받은 외국작가, 청년 소로호호, 조광 1939. 3. p. 262.

4) 동태와 업적, 조광 1940. 12. pp. 106-107.

5) 토마스·만 「붓덴부르-크일가」, 인문평론 1940. 2. pp. 113-114.

6) 전형기의 평론계, 인문평론 1941. 1, p. 14.

7) 김남천에 있어서 가족사연대기소설과 연대기가족사소설이란 용어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론 전체를 통해 볼 때 전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8) 이재선, 현대 가족사소설의 전개 [한국문학의 해석(새문사, 1981)]

_____,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6)

9) 신상성, 한국근대소설론(경운출판사, 1987)

〈가족사소설〉이란 용어로, 그리고 한승옥¹⁰⁾은 「대하」와 「탑」을 개념규정없이 〈가족사 연대기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주형만이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 하여 가족사와 연대기 사이에 가운데뱃점을 찍고, 최재서의 견해에 따라 개념규정을 하면서 「대하」「봄」「탑」「사상의 월야」 등 네 편을 분석하였다.¹¹⁾

그런데 김남천이나* 최재서가 사용했던 것은 단순히 가족사의 측면만이 아닌 연대기의 측면을 고려한 것들인데 비하여, 이재선이나 신상성의 경우는 비록 연대기적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삼대」「태평천하」「대하」를 한 유형으로 설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가족사소설 또는 가족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것 같다.¹²⁾ 이주형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이 가족사와 연대기의 복합형태임을 가운데뱃점을 통해 명료하게 표시하였는데, 이 점은 지금까지보다 상당히 진일보하였으나, 개념규정은 최재서의 것을 그대로 따랐기에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결국 이들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이 가족사소설과 연대기소설의 복합형태로서 일제말기 우리 소설의 독특한 한 유형임을 간과한데서 용어의 혼란상을 초래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사소설과 연대기소설의 두 개념을 먼저 살펴본 이후, 이들이 어떻게 복합되어 새로운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것은 물론 두 소설유형의 개념을 단순하게, 동시에 드러내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그들 개념의 어떤 성격을, 어떻게 복합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3.

가족사소설은 가족소설의 하위유형의 하나이다. 가족소설의 하위유형으로

- 10) 한승옥, 1930년대 가족사 연대기소설 연구—김효식의 「대하」와 한병도의 「탑」을 중심으로 [송실어문 제5집(송실대학교, 송실어문연구회, 1988. 4)]
- 11) 이주형, 1930년대 한국장편소설연구(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1984)
- 12) 김남천, 최재서, 이재선의 개념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는 결혼소설, 부인소설, 교육소설, 영혼소설, 가정소설, 현대의 사가(saga)소설, 세대소설(Generationsroman) 등이 있다. 이들은 가족생활(Familienleben)이라는 것을 소재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 속에서, 그리고 가족구성(family plot)¹³⁾을 취하면서, 각각 특유한 유형으로 발전된 것들이다.¹⁴⁾ 가족사소설의 사전적 설명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소설과 밀접한 유사성을 지니는 것은 가문의 계열(Geschlechterreihen)에 대한 방대한 서사적 서술이다. 이는 종종 현대의 sage로 명명한다. (Golsworthy, Th. Mann, Martin du Gard, Duun, I. Seidel, Stehr 등)¹⁵⁾

가족소설의 새로운 형식은 세대소설(Generationsroman)을 형성한다. “졸라”의 「루공마카르총서」, “씨티퍼트”의 「비티코」, “프라이타크”의 「조비(祖妣)들」, “Th.만”의 「뫼텐부르크가」, “마르맹 드 가르”의 「티보가」, “골드워치”의 「포사이드 사가」……등등¹⁶⁾

가족사소설은 근대이후에 나타난 가족소설의 한유형으로, 현대의 사가소설, 또는 세대소설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어 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한 세대가 가정에 한정된 가족생활이 아니라¹⁷⁾ <가문의 계열에 대한 방대한 서사적 서술>을 그 목표로 한다. 즉 이것은 평면적인 가족적 삶을 수직적으로 확대하여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관계를 서술하는 것이다.¹⁸⁾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생활을 서술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각 세대의 성립에 필요한 그리고 세대간의 연속에 필요한 탄생, 성장, 결혼, 몰락, 죽음과 재탄생

13) Robert L. Caserio, *plot, Story and the Novel*(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9), p. 235. ‘가족구성’이란, 부-자의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서사형태가 이루어지는 구성으로, 가계플롯, 가계적 플롯 등과 같은 개념이다.

14) Dieter Baacke 외, *Kleines Literarisches Lexikon*, 4. Auflage (Bern, München: Francke Verlag, 1966), p. 124. 및 Gero Von Wilpert, *Sachwörterbuch der Literature*, 6. Auflage (Stattart, 1979), pp. 262-263 참조.

15) Dieter Baacke 외, 앞의 책, p. 124.

16) Gero Von Wilpert, 앞의 책, p. 263.

17) 이러한 유형을 가정소설이라 한다.

18) Dorothy Brewstre와 John Angus Burrel은 가족사소설을 ‘길어지고 확장된 빅토리아조의 가정소설’이라 했다.(*Modern World Fiction*, Littlefield, 1963, p. 75)

등의 세대교체의 순환이 드러나게 마련이다.¹⁹⁾

결국 이러한 성격은 장편소설 또는 대하소설의 양적인 측면을 요구하고, 서술형태에 있어서 연대기적 방법을 취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세대의 병치나 교체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대기적 서술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흐름 자체는 시대나 사회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고, 가족이나 가족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가족이 사회의 한 하위제도로써 사회의 기본적인 수단적 기반이기²⁰⁾ 때문에, 가족이 변화되면 가족과 사회의 여러 관계 또한 변화되어 가족 개개인이 그 사회에 새로운 적응을 하게 되고, 그 반대로 사회의 변동은 가족과 가족제도의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사소설은 일종의 후경으로 시대의 변동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다. 즉 가족이나 가계의 연속과 몰락은 시대나 사회의 변동과 맞물려 있고, 이들이 가족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하는 것이다.²¹⁾ 그리고 가족의 교체와 순환을 통해 인간존재에 대한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며, 또한 각 세대의 인물을 통해 시대의 정치·사회적 변화에 대해 각기 다른 역사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다.²²⁾ 그러나 역사적 현실은 가족사의 배경 또는 후경으로 존재하는 것이자, 중심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리고 한 가족은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간직하고 발전시켜온, 다시 말하면 각 가족구성원을 포용하는 동시에 그들을 초월하는 그 무엇, 즉, 각 가족 구성원을 존재케하고 또 그들을 성격화하는 가족나름의 전통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가족의 신분계층을 결정하면서 또한 가족 내부의 고유한 성격을 규정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한 전체로서

19) John Gilbert, *Symbols of continuity and unity of Les Thibaudet*[*Image and Them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p. 128.

20) William J. Goode(최흥기 역), *가족과 사회*(삼성문화문고 162, 1982), p. 17. 이는 사회의 다른 모든 제도가 사회구조 속의 한 요소로서의 가족이 기여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1) 이것은 가정소설이라 해서, 소설의 서사공간이 순수하게 가정내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22) William R. mueller, *Celebration of Life : studies in modern Fiction*(sheed & Ward, New York, 1972), p. 139 참조.

파악할 때, 가족의 전통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의 성격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뿐 아니라 가족을 결성하는 자연적 혈통은 반드시 그 가족의 가풍으로서 전통화되기도 한다.

결국 가족구성원 개개인은 전체로서의 가족의 일원으로, 가계의 전통 즉 신분계층, 가풍이나 가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속성이 강조된다.

마지막으로 개념적 측면과는 다소 다르지만, 한 가지 덧붙일 것은, 가족소설은 전쟁이나 사회적 변동이 심한 시기에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²³⁾ 가족사소설 역시 가족소설에 속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대상황이 가족과 가계의 존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이들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과, 또한 가족의 몰락과 상승의 양상이 이러한 혼동의 시기에 잘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4.

에드윈 뤼어는 소설의 주요 유형을 행동소설, 성격소설, 극적소설, 연대기소설 그리고 시대소설 등의 다섯 가지를 나누었는데, 중요한 유형으로는 성격소설, 극적소설, 연대기소설 셋을 들고 있다.

성격소설은 등장 인물을 공간적으로 탐구하는 소설로, 사건 속의 인물이 강조되고, 인물을 위한 플롯이 전개된다. 그러므로 인물은 그 시대와 사회와 풍속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

극적소설은 등장 인물을 시간적으로 탐구하는 소설로서, 공간은 거의 고정되어 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등장인물의 사회 속에서의 체험 영역이 확대되고 성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뤼어는 이 두 유형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격소설이 생활의 양상을 그린다면 극적소설은 체험의 양상을 형상화하는 것이다. 성격소설의 가치는 사회적이고, 극적 소설의 가치는 개인적이거나

23) 앞의 문학사전을 참조할 것.

보편적이다. 전자에서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인물을 볼 수 있고, 후자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는 인물을 볼 수 있다.²⁴⁾

연대기소설은 이러한 두 유형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조화시킨 것으로서, 극적소설이 시간에서 자유롭고 공간에서 제약받는 점과 성격소설의 반대되는 입장을 극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시간이나 공간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거대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이 여러 체험을 통해 성숙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인생도를 드러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연대기소설은 사회를 배경으로 개인의 생활을 드러내지만, 극적소설의 공간적 제약과 성격소설의 시간적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방대한 역사서술과 인생의 보편성을 획득하게 된다.

연대기소설의 보편성이란 인생을 탄생, 성장, 쇠퇴의 영원한 반복의 과정으로 보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인생의 현상이나 운명 같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탄생과 성장·죽음과 다시 탄생하는 순환’—이것이 스토리의 패턴이며 또한 인생의 패턴이기도 하다.²⁵⁾

그러므로 이러한 방대한 스토리의 패턴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연대기적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연대기소설은 <편년체의 역사서술>²⁶⁾ 방법을 채용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극적소설이 긴밀하고 논리적인 발전적 플롯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연대기소설은 외적인 시간의 틀을 짜놓고 일화들을 허술하게 묶어놓는 플롯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연대기 소설의 사건들은 대체로 우연적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건과 사건사이의 내적인 연계성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갖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연대기소설은 대체로 규모가 크고 역사적 문제를 다루기에 알

24) E. Muir, *The Structure of The Novel*(New York, 1929), p. 63.

25) 위의 책, p. 102.

26) 조남현, *소설원론*(고려원, 1983), p. 299.

맞기 때문에²⁷⁾ 총체소설이라고도 하는데, 현대에 있어 상당한 유행하는 소설 유형으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그 대표작으로 하여, 로렌스의 「아들과 연인」,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울프의 「야곱의 방」 등이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한다.

5.

가족사·연대기 소설은 연대기를 후경 또는 배경으로 하여, 가족의 역사를 전경으로 나타낸 소설이다. 그러므로 가족사와 연대기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는 것이 개념의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고, 두 유형의 복합형태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

이를 인물, 구성, 서술방법, 지향점 또는 주제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가족사·연대기소설의 인물은, 연대기소설에서의 한 개인으로서의 인물이 아니라, 가족사소설에서의 전체 가족의 일원으로서 즉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측면이 강조되는 인물이다. 즉 시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아닌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가족적 삶이 중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심인물들은 가족이나 가계의 전통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풍이나 가업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속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구성적 측면에서는 가족사적 측면과 연대기적 측면 양자가 혼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가족사소설은 가족의 역사를 다룬 것이기에 세대담의 가족구성을 취하고, 또한 이것은 세대의 병치나 교체를 통해 한 가족의 몰락과 하강의 순환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연대기소설에서의 구성은 일화들을 허술하게 묶어넣는 에피소드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들이 복합되면서, 그 방식은 순수하게 한 가족의 세대적 삶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이들 가족과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인물들의 삶이나 사회나 시대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약하면 전체적인 플롯은 세대담의 가족구성을 취하면서, 이에서 벗어나려는

27) 김종하, 현대소설 분석노트(세종출판사, 1990), pp. 14-15.

서사일탈의 에피소드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서술방법에 있어서 연대기소설과 가족사소설 양자는 일치한다. 가족사 소설은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서술하기 때문에 연대기적 서술의 방법을 취하며, 연대기소설 또한 거대한 역사적 변천 속에서 한 개인의 편력을 다루기 때문에 연대기적 서술의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다. 연대기적 서술의 대상이 개인과 가족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지향점 내지 주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사 소설은 몇 세대에 걸친 가족의 순환적 삶을 통해 '인간과 역사 양자에 대한 철학'을 드러내는데 있고,²⁸⁾ 연대기소설 역시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의 개인의 삶을 통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인생도를 드러내는데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단지 가족사소설이 가족의 삶에 초점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대기소설처럼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므로 가족사·연대기소설은 가족의 역사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연대기적 서술의 방법으로서의 연대기가 아니라, 연대의 차례로 엮은 역사의 측면도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즉, 가족사·연대기소설은 단지 가족사의 측면만이 아니라 연대기로서의 시대와 사회에 대한 현실인식의 측면도 중시되는 소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족사·연대기 소설은 가족사소설과 연대기소설의 복합형태로서, 몇 세대에 걸친 가족의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며, 전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가족구성과 서사일탈의 에피소드적 구성을 취하면서, 인간과 역사에 대한 철학적 표명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가족사와 더불어 역사적 현실에 대한 인식의 측면도 중시되는 소설이다.

6.

여기서는 앞에서 언급한 김남천, 최재서 그리고 이재선 등이 사용한 가족사 소설 또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용어의 명칭과 개념의 혼란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28) John Gilbert, 앞의 책, p. 128.

최재서는 토마스 만의 <붓덴부르크 일가>를 세계 현대소설 연구의 일환으로 분석함으로써, 가족사소설의 이론을 소개한다.²⁹⁾

그는 이 논문의 서두에서 과거에 가족생활을 취급한 작품들을 그 의도나 방법에 따라 가정소설과 가족문제소설의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한다. 하나는 중류계급시민(부르조아층)의 가족관념을 옹호하고 찬미하는 가정소설인데, 그들은 문학에서 가정의 가치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이상적 가정의 내부에서 생겨나는 부부나 형제 혹은 부자간의 갈등이라든가 새로운 사회정세와 낡은 가족제도의 모순, 기타 유전, 직업, 교육, 재산 등의 가족생활을 사회문제로 취급한 소설이다. 가족사소설을 이 두 유형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족사소설의 성격을 설명한다. ① 그 의도에 있어 가족제도를 옹호한다든가 배격한다는 사회학적 관심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고, ② 한 연대기로서 어떤 한 가족의 역사를 3·4대에 걸쳐 취급하는 것이며, ③ 사회의 대표적인 자본가 가족을 다루면서 사회정세와 더불어 융성, 절정, 몰락의 가정을 밟는 한 가족 전체의 운명을 그린다. ④ 그리하여 그 속에 고대 서사시다운 위대성-인간성의 심화와 사회율의 엄숙성-을 부여하려 하였다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그는 ②에서 토마스 만, 골즈워디, 마르탱 뒤 가르 등의 서구의 가족사소설 작품들을 들면서, 이러한 성격을 설명하였는데 그들을 엄밀하게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두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②를 제외하고는 가족사·연대기소설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지 않기에 개념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그가 분석한 만의 「붓덴부르크일가」 역시 가족사소설로 다룬 것이지 연대기적 성격은 <사회정세와 더불어>라고 아주 간단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³⁰⁾

29) 각주 5)와 동일함.

30)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붓덴부르크 일가」를 가족사의 측면과 그의 성격론 모델론과 연계시켜 다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대의 장편소설 개조 논의에 직접 참여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고, 서구의 가족사소설 이론을 소개하여 소설론의 궁핍을 느끼는 한국문단을 계몽하려는 측면에서 쓰여진 것이다. [김윤식, 한국 근대 문예 비평사 연구(일지사, 1986), p. 480 참조. 이를 '비평의 아르바이트화'라 한다.] 오히려 그는 보고소설과 연대기소설을 우리문학과 세계문학이 나아갈 방향으로 보았다. (현대 세계문학의 동향, 조선일보 1938. 4. 22~4. 24.)

김남천은 앞에서 언급한 「장편소설에 대한 나의 이상」에서 〈가족사나 연대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것이 최초의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현대조선 소설의 이념」에서 다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로만』개조의 단초적인 출발가지를 합쳐서 생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보다 풍속개념의 재인식과 가족사와 연대기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장소일까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풍속이라는 개념을 문학적 관념으로 정착시키고 그것을 들고 가족사로 들어가되 그 가운데 연대기를 구현시켜 보자는 것이다. …중략… 풍속을 가족사로 들고 들어가면 우리 작가가 협착하게 살펴보지 못하던 넓은 전형적 정황의 묘사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때 문이고, 그것을 다시 연대기로서 파악하자는 생각은 우리의 정황의 묘사를 전형화하고 그 묘사의 핵심에 엄밀한 합리성과 과학적 정신을 보장하겠다는 심사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의 지적 관심을 높여겠다는 심사이다.³¹⁾

〈가족사로 들어가되 그 가운데 연대기를 구현시켜 보자는 것〉은 가족사소설의 측면만이 아닌 연대기소설의 측면도 말하는 것이므로, 그의 가족사·연대기소설이 가족사와 연대기의 복합형태를 뜻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정황의 묘사를 전형화〉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역사적 현실을 묘사하고 나아가 현실을 총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며³²⁾ 〈묘사의 핵심에 엄밀한 합리성과 과학적 정신을 보장하겠다는 심사〉는 예술적 경향소설론을 이를 통해 구현하겠다는 것이다.³³⁾

가족사연대기소설을 지향한다고 보아지는 연재소설 『봄』 의하면 …중략… 이 작품(한설야의 「탑」; 필자) 역시 전환기를 포착한 것으로 보아 연대기임이 분명하고, 시대정신을 가족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사소설이 분명하다. 씨는 또한 풍속도 고려하였다. 연래의 신변세계에서 배운

31) 각주 2)와 동일함.

32) 이를 송하춘은 〈그는 소설 속의 한 사람의 전형적 인물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그리고 싶어하였다.〉고 하면서, 〈그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전형적 전황〉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현실의 총체적 파악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지향하는 바가 가족사·연대기소설이기 때문이고, 이 부분은 연대기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송하춘, 1930년대 후기 소설논의와 실제에 관한 연구-김남천의 「대하」를 중심으로, 세계의 문학, 1990. 가을호, pp.199~219참조).

33) 송하춘, 위의 논문 참조.

삼화식 구성과 풍속의 나열과 잡설이 적지않아 작품의 다이내믹한 맛을 감소시켜서 추진력을 덜었다. 연대기가족사소설의 의식을 한층도 좀 더 투철히 가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가령, 이씨나 한씨가 주인공을 모두 육칠세의 소년으로 선택하였는데, 나는 이것이 연대에 대한 의식보다도 편의적인 생각에서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석립이나 우길이는 모두 작자 자신들이다. 그들은 삼십년대의 대표인물이긴 할지언정 한말대의 대표인물은 되지 못한다. 작자 자신의 기억을 이용한다는 편의적인 생각과 작자 자신을 돌아본다는 회고정신에 의해서, 연대의 정신은 명확히 형상화되는데 장애를 받고 있다. 만약 씨 등이 이같은 편의적인 생각에서가 아니고 연대기가족사소설의 투철한 이념에서였다라면 「탐」은 훨씬 더 인물을 정비하고 잡설도 제거하고, 풍속집이 되는데서도 구원을 받았을 것이며 「봄」도 「신개지」에서 본 금점판과, 방개어미와 같은 남술이처와, 방개와 같은 국실을 다시금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이다.³⁴⁾

위의 인용에서는 다소 직접적으로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이 설명된다. 〈전환기를 포착한 것〉은 연대기적 측면으로, 〈시대정신을 가족의 역사 속에서 찾으려고 한 것〉은 가족사적 측면으로 파악한 것이기에, 이 둘의 성격이 작품 속에 모두 나타나야만 가족사·연대기소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봄」이나 「탐」 등이 〈연대의 정신〉 즉 시대나 사회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작품이 단순하게 가족사적 소설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김남천은 가족사·연대기소설의 개념을 분명히 파악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뒤의 연구자들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가 가족사·연대기소설론에 풍속의 측면을 추가하여 논의를 전개한 점이 최재서의 서구적 이론과는 달리 당대의 우리 문학과 시대적 현실에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³⁵⁾

가족사소설이란 유형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한 것은 이재선에 이르러서이다. 그는 가족사소설과 가족사·연대기소설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가족사소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삼대」 「태평천하」 「대하」 등을 이 유형으로 묶어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두 유형의 변별성을 간과하고, 연대기적 측면은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가 정리한

34) 산문문학의 일년간, 인문평론 1941. 1. pp. 20-21.

35) 풍속에 대한 고찰은 본고의 목적이 아니기에 다음 기회로 미룬다.

가족사소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소설인 동시에 대하소설의 일종으로 가족에 대한 편만한 관심으로, 가족을 지속적인 삶을 지닌 영속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둘째, 구조에 있어 연대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시간의 유동이 매우 급진적이다. 그러므로 시간에 있어 계보적 엄격성 (genealogical imperative)이 존중된다. 셋째, 발생요인은 대개 전쟁과 기타 사회적인 변동이 심한 경우이다. 넷째, 가족간의 '고리'나 '끈'의 숙명성이 강조되어, 개인은 전체로서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똥이나 가업의 구속성이 강조된다. 다섯째, 가문의 혈통이나 유전적인 인자가 가족의 운명내지 쇠퇴와 밀착되는 결정론적 경우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결정론이 가족의 흥망성쇠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특성은 모두 가족사·연대기소설에 담겨 있는 것들이지만, 가족사·연대기소설에만 해당되는 것들이 아니고, 가족소설, 가족사소설 등에 공통되는 것들이다. 또한 연대기적 측면으로서의 가족사·연대기소설의 유형적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이재선 이후의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